



영화 & 자연 & 여행 산골영화제 매력에 흠뻑 취하다

지난 주말 무주는 '철썬, 울림, 어울림'이 함께 하는 영화소풍,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의 열기로 뜨거웠다.

지난 21일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작 <와사 필름 심청>을 시작으로 24일까지 무주군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을 비롯한 산골영화관, 예체문화관, 전통문화의 집, 덕유산국립공원, 향로산자연휴양림에서는 27개국에서 초청한 영화 총 77편 중 68편의 영화가 상영됐으며 상영장은 전국에서 찾아온 산골영화제 마니아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서울에서 왔다는 김 모 씨(35)는 "1회부터 빠짐없이 산골영화제를 찾아오고 있다"라며 "영화를 좋아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주산골영화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자연과 여유가 너무 좋아서 해마다 안 올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전주에서 온 이 모 씨(28)도 "아의 상영장을 주로 찾았는데 한밤 숲 속에서의 운치가 영화의 재미와 감동을 배가 시켜주더라"며 "특히 별자리를 보며 영화를 감상하던 향로산 자연휴양림에서의 별밤소풍은 오래 기억날 것 같다"라고 전했다.

영화제 기간 무주등나무운동장과 덕유산국립공원에서 진행됐던 'MUSIK & TALK & PLAY, 유월의 숲'도 큰 인기를 모았다. 21일에는 하림과 조정치, 박재정이 개막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낭만 가득한 음악선물을 안겼으며 22일에는 이

영화제 개최 6년째 마니아층 굳어져
명소투어 · 별밤소풍 · 반딧불시장 등 호응
오늘 폐막식 진행... 전통생활문화체험관서

병풍과 하림, 정인과 에디킴, 이상한 계절과 투룬이 이야기가 있는 특별한 공연을 선보였다.

토요일인 23일에는 제아와 퍼센트, 김사월과 김해원, 데이브레이크와 바이 바이 배드맨, 덴마일즈와 뮤즈그레인 이 열정 넘치는 무대로 관객들과 하나가 됐으며 24일에는 전제덕과 말로, 랩소리 프로젝트가 무주산골영화제의 즐거움을 더했다.

이외에도 22일에는 페스티벌 프렌즈 황찬성과 박규영이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를 기념하는 핸드프린팅과 함께 관객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 호응을 얻었다.

23일에는 김소영 前 아나운서와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으며 '담안리책발전소'가 큐레이션한 도서들과 영화출판물 제작사 '블레인 이야기'가 소개하는 출시작들을 만날 수 있는 산골책방도 영화제 기간 내내 운영돼 발길을 모았다.

한편, 김환태문화관 & 최북미술관 2층 전시실에서는 <더 테이블 2017> 등을 연출한 김종관 영화감독의 사진전 <당신의 곁, 6.1.~30.>이 열리

고 있는 가운데 24일 등나무운동장에서는 '감독과의 스페셜 토크' 시간이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방문객들은 "좋은 영화는 물론이고 공방, 책방, 포토존, 전시회 등 소소한 즐거움을 같이 누릴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다"라며 "저틀바스를 타고 무주명소들을 돌아 보던 산골소풍과 토요일 밤 무주장에서 만났던 야시정도 너무 좋았다"라고 전했다.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하루 한 번 반디랜드와 태권도원, 머무와인동굴, 향로산자연휴양림 등 무주명소들을 투어(2~3시간 코스)하는 산골소풍을 운영했으며 23일 무주반딧불시장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하는 어울림무대와 천마호떡, 사과즙, 도리뱅뱅, 다슬기 전 등 로컬푸드가 함께 하는 야시장이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는 25일까지며 폐막식은 11시 30분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무주관객상, 전북영화비평포럼상, 뉴비전상 등 시상식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진안군 진안읍행정복지센터(읍장 전춘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공무원 10여 명이 지난 23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배우기 위해 익산시 영등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동네복지 현장을 방문했다.

영등1동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채수훈 맞춤형복지팀장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영등1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현장

및 사례'를 주제로 이뤄졌다.

강의는 실무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설명과 깊이 있는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었으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협의체 위원의 역할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등1동은 2016년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담당공무원의 역

무역량 향상을 위한 자체 학습동아리 운영과 지역사회 및 주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민관 협력,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을 유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전국에서 이를 배우러는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에 참가한 진안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성만 위원은 "현장을 중심으로 학습과 실천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영등1동의 복지서비스가 빛을 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킬레이트제 활용기술 보급

하우스 내 토양 염류장애 해결 '눈길'
관주 방법 편리 · 비료 사용량 감소 등 기여

진안군은 시설재배 농가의 큰 어려움 중 하나인 하우스 내 토양 염류장애를 해결하는 킬레이트제(DTPA, 구연산) 활용기술을 보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킬레이트제 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새기술 보급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토양에 집적된 염류를 분해하여 작물이 이용할 수 있게 해 하우스 염류장애를 해결하고 농산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시범사업이다.

염류장애는 하우스 내 토양 잔류 염분(소금기)이 토양 표면에 집적되어 토양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생산량 감소로 이어진다.

기존의 염류장애 해결방법으로 담수제염, 객토(토양 교체), 흡비·녹비작물 재배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투입비용이 높고 제염효과가 적거나 염류 제거 작물을 재배하는 동안은 소득을 포기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된 킬레이트제 활용기술은 작물을 재배하면서 염류 제거가 가능하고 비료 사용량 감소, 관주 방법의 편리함 등으로 염류장애 해결에 매우 효율적인 기술이다.

킬레이트제는 토양에 녹아있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미량원소 등의 성분을 토양에서 분리해서 작물이 쉽게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킬레이트제 활용 방법은 51의 끓는 물에 킬레이트제 680g을 녹인 후 이를 1000배 희석해서 1주일에 1회 관주해서 공급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이완현 소독작목팀장은 "킬레이트제를 사용하면 시설하우스의 염류집적을 제거하고, 비료 사용량을 줄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관내 하우스 염류장애 해결 기술을 확대시키고, 내년도 새기술 보급사업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롯데백화점(잠실점)에서 CA저장 사과 홍보 행사를 가졌다.

장수군, CA저장 장수사과 소비자 첫선

장수군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 롯데백화점(잠실점)에서 CA저장 사과를 대도시 소비자에게 선보였다.

CA저장은 저장고 안의 온·습도 및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해 농산물의 호흡을 지연시켜 품질 변화를 최소화하는 저장기술로 일반 저온저장(6개월)보다 저장가능기간이 3~6개월 길며 저장한 농산물의 품질도 훨씬 우수하다.

사과를 이용한 CA저장은 2015년부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수확후관리과(박석호 박사)와 장수군농업기술센터가 공동실증연구를 통해 한국형 CA저장고를 보급했다.

이번 홍보행사에 맞춰진 장수사과는

작년 가을에 수확한 후지사과로 수확 후 CA저장고에 8개월간 저장했으나 당도, 산도, 수분률이 거의 변하지 않아 가을에 맞본 사과의 아삭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소비자의 호응도가 높았다. 군은 우선 공동출하가 가능한 장수사과영농조합, 신농영농조합 등 2개 단체에 장기저장용 CA저장고를 지원했다.

서정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 장수사과 유통다양화를 위해 출하 시기에 맞는 저장 방식체계를 확립해 단기 국내 유통은 일반 저온고를, 연중 출하하는 학교급식이나 해외 수출사과는 CA저장고를 이용하는 등 고품질로 장수사과 경쟁력을 강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 아리

장수군, 2018 산악연맹 등반대회 개최

장수군산악연맹(회장 한병태)은 지난 23일, 뜬봉샘 생태공원 광장에서 2018 장수군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장수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장수군 산악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장영수 군수당선자를 비롯한 박용근도의원당선자와 장수장계농협장 등 관내 기관단체장, 장수군 산악연맹 회원 등 3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무분별한 산악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산림보호활동을 목적으로 열린 이번행사는 관내 여러 산악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송병주 회원의 안내로 등반코스는 생태공원광장에서 뜬봉샘을 지나 신무산(897m)정상을 찍고 수분공소로 내려오는 코스로 2시간 1코스와 2시간 30분 2코스로 구분하여 진행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주천면

윤일암&반일암 여름밤 축제 '성황'

제2회 윤일암과 반일암의 여름밤 축제가 지난 23일 주천면사무소 광장에서 열렸다.

주천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만춘)에서 기획·공모한 이번 행사는 주민이 하나 되어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만들고자 마련된 축제다.

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알콩달콩 혼례미당'에서는 전통혼례를 치르는데 주민들이 참여하여 옛 전통을 되살리고 같이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 마당극 공연에서는 마당극대 우금치가 '청아청아 내 딸 청아'를 공연해 연로한 어르신들은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관람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방문 봉사활동

무주읍 무주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희영, 이정은) 위원들과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등 20여 명은 지난 23일 취약한 생활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가정을 찾아 집안 청소와 쓰레기 수거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앞선 2일 권 모 씨(59) 집을 찾은 봉사자들은 마당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유리 and 철사, 나뭇가지, 플라스틱박스, 장판 등 각종 폐기물들과 생활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종종 치매와 우울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가족들의 상황을 고려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물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